

## 백석학원(白石學園), 국내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

편집부

명실공히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천안대학교(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와 천안외국어대학의 학교법인인 백석학원이 2002년 11월 1일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했다.

###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백석학원

신학자이자 행정학자인 백석학원의 설립자 백석장종현 박사는 1976년 대한복음신학교를 설립해 교육사업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26년만에 백석학원은 천안대학교(총장 : 이천수), 천안외국어대학(학장 : 이성탁), 기독교신학교(학장 : 박아론), 총신예술학교(학장 : 김기만) 등 4개 대학과 9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명문사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우후죽순처럼 늘기 시작한 국내 지방대학들 대부분이 학생 모집이나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획일화된 교육으로 차별성이 없는 데다 외국학교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국내 대학의 현실 속에서 백석학원의 눈부신 성장은 교육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며,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책임교육, 인성교육에 힘써 온 백석학원

학교법인 백석학원은 1976년 11월 1일 설립자 장종현 박사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서울 용산구 동작동 18-3에 대한복음신학교를 설립한 이래 26년만에 국내 굴지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했다. 천안대학교와 천안외국어대학을 설립한 그는 학생 개개인에게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립 초기부터 대학 운영의 초점을 책임교육에 맞춰왔다. 또 고도화된 지식이 사회와 국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훌륭한 인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에 힘써왔다.

실제로 백석학원 산하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정보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컴퓨터 관련 과목을 이수



▲ 천안대 전경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화의 주역을 꿈꾸는 학생들이 세계 각국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활영어를 3년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담임목사제도나 담임교수제도를 활용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체크해 상담하는 등 대학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입학전형을 활용해 주변환경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쉽게 대학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교생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학교이지만 편협한 종교적 시각을 지양하고 인류사회 전반에 걸친 학문 분야에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백석학원만의 교육철학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93년 전문대학으로 인가받은 천안의국어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직업

교육 추진', '평생교육 시스템' 두 분야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천안대학교 역시 200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전 평가 분야에 걸쳐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은 궁극적인 객관적 평가를 얻어내고 있다. 특히 천안대학교의 신학분야는 국내 최대라는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신학대학원은 전임교수만 50명이 넘고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8백명을 넘어섰다. 5백명인 학부 정원 역시 끊이지 않는 학생들의 지원으로 증원을 계획 중이다.

## 투명한 대학 경영 통해 각 분야 우수 평가 받아

백석학원의 이 같은 급성장 뒤에는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물론 전 교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백석학원의 급성장을 두고 '조만간 어떤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경계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7년 IMF 사태로 이 같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는 더욱 노골화됐지만 백석학원은 투명한 학교 경영으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백석학원은 천안대학교에 5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실 등 각종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사 신축을 이뤄내고 국내 최대의 전자도서관을 신축하였으며, 또 백석학원 산하 교육기관의 교수진을 비롯한 교직원들 역시 국내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책임교육의 요람'이라는 백석학원의 설립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대학교와 천안의국어대학의 강의

실과 연구실, 교직원 사무실은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열기로 백석학원 산하 대학들은 신 수도권 유망대학으로 선정돼 매년 10대 1의 높은 신입생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학부는 5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당시 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 21세기 교육지표를 통한 인재양성에 최선

사학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백석학원은 2000년 3월 1일 서울에 있던 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와 천안대학교를 합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백석학원의 미래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백석학원은 앞으로 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의 정보화, 학습자 중심교육 등 21세기 교육지표를 통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육영 26주년을 맞는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를 만나 그의 교육관을 들어 본다.



▲ 설립자 장종현 박사

"한국의 대학은 획일화된 교과지식 교육에 과도하게 치중해 왔습니다."

교육재단 백석학원을 설립해 육영 26주년을 맞는 장종현 박사(55·신학, 행정학)는 한국대학이 처한 위기를 이

렇게 진단했다.

장 박사는 또 "대학교육이 단편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보화·세계화의 중심에 설수 없다"며 "이제 한국의 모든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학은 대학 자체만을 위한 대학이 되서는 안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노인과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백석학원의 급성장도 두고 남들은 의아해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교육발전에 앞장서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훌륭한 덕성을 겸비한 지성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21세기 대학은 창의력을 존중하고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위기의식이 팽배한 한국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들마다 '어제의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덕망있는 교육자, 존경받는 지도자, 정직한 각계 각층의 일꾼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학들마다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자이자 행정학자인 장종현 박사는 1976년 11월1일 대한복음신학교 개교와 함께 학교법인 백석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26년만에 천안대학교와 천안외국어대학, 기독교신학교, 충신예술학교 등 4개 대학과 9개 대학원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명문사학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